

# 자기소개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	---	-----	---

## I.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채워줄 초등교사를 꿈꾸며(1970~1994)

어릴적 농산어촌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과 산, 들, 바다를 벗삼아 자연 속에서 삶 자체를 공부의 소재로 삼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과 땅의 소중함을 느끼며 함께 땀 흘리면서 일 속에서 세상을 배웠고,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일과 배움을 병행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때문으로 기억됩니다.

대학시절에는 초등교육을 고민하는 독서토론 모임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키웠습니다. 교육과정과 학생 삶의 연결, 수업과 놀이, 학생 진로교육에 대해 미리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교사의 책무라 생각했고 나름대로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경영 도서가 다수 출간되어 학생 중심의 학급운영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되었고, 자신감과 포부를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구성주의 교육 이론과 열린교육이 도입되던 시기였고, 농산어촌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II. 삶 속에서 만난 부안 아이들과의 동행 20년(1995~2015)

초등 임시교사(2개학교, 3개월 14일) 경험은 정규교사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경영 도서를 두루 읽고 아이들 중심의 학급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학급에 적용하였습니다. 1995년 초임 발령지(○○초)에서의 경험은 잊지 못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부안군 초등학교들과 교육 소모임 활동을 하며 **주제별·시기별 학급활동 계획과 지도안을 작성하여 교육에 접목**하였습니다. 학급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운영 계획**을 세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료교사들과 새로운 평가 방법을 논의하여 **수행 및 서술형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다양한 학급경영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열린교육이 도입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승용차와 학부모님 차량, 렌트카 등을 이용해 **현장체험학습**과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시작했고, 동료교사들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시도가 조금씩 학교를 바꿔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때 생겼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부안군 초·중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던 ‘**부안 어린이날 행사**’가 9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어갈 즈음, 이를 **직접 기획**하여 초·중 선생님들과 함께 ‘부안 어린이날 행사’를 부안예술회관에서 되살려낸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의 혁신교육과는 품이 다르긴 하지만 저의 역량을 끌어 올려준 것은 **연구시범 학교를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었습니다. 국어과 언어능력개발시범학교(○○○초)에 보조교사로, 창의성개발시범학교(○○초), 해양교육시범학교(○○초)에 주무교사로, 음악교육시범학교(○○초), 창의·인성 연구 및 모델학교(○○초) 등의 연구 개발에 협

력교사로 참여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연구들이었지만, 최대한 교실수업과 연계하려고 하였고,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개인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2008년)에서 특별·재량활동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특별·재량활동을 무의미하게 보내던 시절에 동료교사들과 협업하여 1,2학기 각 3일씩 **주제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동료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 경험은 이후 혁신교육을 시도할 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사생활이었던 ○○초(2009.3~2014.8)에서 연구기획 업무로 1년, 교무기획 업무로 4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의 수평적 리더십으로 교사들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였고, **교육과정 워크숍**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의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교육연구 활동과 연수**를 하고 **학교행사, 공모사업, 교내인사** 등은 **전교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단위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협의되기 시작하였고, 교사들은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교감 승진을 하고 첫발령(2014.9.1.자)을 받은 학교는 **혁신학교인 ○○초**입니다. 짧은기간 근무하였지만, 교직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구성, 교실수업개선, 초등성장평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을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구성해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Ⅲ. 다시 또 도전! 선생님을 지원하는 역할로의 변화(2016~2020)

혁신학교(○○○초, 2014.9.1.~2016.2.29)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육전문직으로의 도전**을 택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열정과 포부를 안고 새로 도전한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 준비 기간과 교육전문직에 임용된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공부와 경험으로 저의 역량을 키워나간 듯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발령(2016.3.1.~2017.2.28.)을 받아 첫해에 유아교육, 영재·발명교육 업무를 맡아 지역의 유치원교사 **혁신교육과정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재·발명교사들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4년 동안(2017.3.1.~2020 현재) **지역교육정책,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교육, 학교혁신, 교육협력지구,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사업, 주체별 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맡아 지역의 정책 입안 및 혁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교육정책 입안을 위해 **지역교육정책 토론회(2017-2018)**, 읍·면단위 **초·중 연계 권역별 학교정책 토론회(2019-2020)** 등을 개최하여 학교로부터의 교육정책, 초·중 교육과정, 방과후교육, 돌봄교육,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등이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위해 ○○교육나눔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꾀했고 4년 동안의 노력으로 현재는 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구성과 교실수업개선, 초등 성장평가 실행연수** 등을 지원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혁신학교간 공유·나눔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의 또 다른 주체로서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지역교육 혁신네트워크(○○교육넷)를 구성하여 지역혁신교육이 지역의 선생님들의 협의체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지구 운영은 학교와 마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마을교육과 학교교육과정의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을학교 해마다 성장하고 있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협력은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체험·인적 자원은 지역에서 제공한다는 목표로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체별 네트워크는 교(원)장, 교(원)감, 교무·연구, 교무실무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민주적인 학교와 학교간 소통과 사례 공유, 교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4개 네트워크를 총괄하며 교(원)장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의 5년은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간의 소통과 협력, 학교내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역량의 중요성,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변화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하였고, 학교로 돌아가 이를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IV. 오늘도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2021~)

교사, 교감, 교육전문직으로 쌓아간 경험과 역량을 이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다름을 알고 있으며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끌고 가는 학교장이 아닌 교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이 없으면 절대 바로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초등학교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걷고자 하는 학교장의 길은

첫째, 교직원의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교사교육과정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개축사업과 연계하여 학교공간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의 공부는 자발성에 근거한 자기 관리에서 출발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개발이 교육과정과 방과후에 구현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주체의식에서 출발한 학교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체별 자치 조직을 지원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주체간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는 학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명문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교사는 그 꿈을 든든히 지원하며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에서 삶을 동행해 가는 것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저는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닦고 지지해 주는 학교장이 되고자 합니다.

여섯째, 학교-마을 지역공동체, 초·중 연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참된학력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가치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안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